

## ‘천안문 사건’ 완전히 지운 중국

(1989년 6월 4일 민주화 시위)



2019년 18만 인파 vs 2023년 친중 행사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월 4일 ‘천안문 사건 30주기 추모 집회’에 참석해 홍콩 빅토리아 파크를 가득 메운 시민들(왼쪽 사진). 이듬해부터 3년간 홍콩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내세우며 천안문 추모 집회를 금지했다. 오른쪽 사진은 4일 친중(親中) 단체가 중국 특산물 판매 행사를 연 빅토리아 파크 전경이다. 올해 코로나 방역이 해제됐는데도 천안문 추모 집회가 자취를 감춘 배경에 중국 지도부의 ‘천안문 사건 지우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민주화 시위를 지도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천안문(天安門) 사건 34주기인 4일, 홍콩 최대 공원인 빅토리아 파크에선 중국 지방 특산물 판매 행사가 열렸다. 친중 단체인 ‘홍콩 26개 성급동향사단(省級同鄉社團) 연합’이 마련한 행사장 입구엔 ‘홍콩의 조국(중국) 귀환 26주년 경축’이라고 적혀 있었다. 빅토리아 파크는 천안문 사건(1989년) 이듬해인 199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확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6월 4일 천안문 희생

### 매년 추모 집회 열리던 홍콩…3년간 보안법·방역 내세워 봉쇄 민주화 함성과 불빛은 꺼지고, 올해는 친중 단체가 자리 선점

자 추모 집회가 열리던 장소였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집회를 금지한 이후 3년 만인 이날, 방역이 해제됐음에도 추모 집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경찰 수천 명이 공원을 에워싸고 검문을 벌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코로나를 틈타 주도면

밀하게 진행해온 ‘천안문 사태 지우기’가 성공한 것이다. 2019년엔 18만명이 넘는 사람이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광장에서선 ‘천안문’ 이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를 친중 소풍 행사가 대신 채웠다. 홍콩 반환 기념일은 7월 1일이지만 한 달 앞서 행사를 열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비교적 언론·집회 자유가 보장되던 홍콩에선 중국에서 금지하는 천안문 추모 집회가 30년 동안 열려 왔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등을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홍콩보안법을 2020년 5월 제정하며 천안문 집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에 나섰다. 동시에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그해부터 천안문 추모 집회를 불허했다. 2021~2022년에도 중국 당국이 집회

를 막고 빅토리아 파크를 봉쇄하면서, 공원 주변을 100여 명이 행진하는 수준으로 집회는 쪼그라들었다. 나아가 코로나가 종식된 올해는 천안문이 ‘6월 4일의 홍콩’에서 아예 사라졌다. 천안문 사건 이후 줄곧 추모 집회를 주최해온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가 중국 지도부의 수사와 압박에 2021년 9월 공식 해산한 탓에 지난해부터는 주최자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베이징=이별찬 특파원 **A14면에 계속**

## 中서 가장 먼저 내몰린 배터리, 美·유럽 49% 점유

###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5·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中선 철저한 견제로 겨우 2%

미국 GM의 주력 전기차 모델 볼트에는 LG에너지솔루션(엔솔)의 배터리,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포드의 전기차 F150 라이트닝에는 SK온 배터리가 들어간다. 독일의 폴크스바겐과 BMW의 최고 인기 전기차인 ID4, i4의 배터리도 각각 LG엔솔과 삼성SDI가 만든 것이다.

이처럼 한국 배터리는 자동차 3대 시장 중 2곳인 미국·유럽 전기차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중국을 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올 1분기 49%에 달한다. 1992년부터 30여 년간 끈기 있는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가 맨 처음 도전장을 내밀었던 곳은 중국 시장이었다. 좀처럼 열리지 않던 배터리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무렵이었다. 당장 LG와 삼성은 중국 현지 공장을 착공했지만, 완공되기도 전인 2015년 5월 중

국은 ‘제조 2025’를 발표하며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에 내놓고 나섰다. 이듬해부터 7년간, 중국에서 만들더라도 한국 기업 배터리에 대해선 보조금을 배제하면서 우리 기업 점유율은 2%까지 폭락했다. 국내 다른 산업이 2017년 ‘사드 보복’으로 밀려나기 1년 전부터 중국 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한국 배터리는 역설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유럽과 미국으로 눈을 돌린 덕분에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우뚝 섰다. 이후 근 대덕대 교수는 “배터리는 중국의 견제와 차별이 오히려 보약이 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류정 기자 **A5면에 계속**

## “민족 영웅 발굴” 보조금 받아 尹퇴진 강의

민간단체 보조금 3년 1800건 비리  
대통령실 “내년 예산 5000억 감축”

통일 운동을 한다는 A 단체는 ‘물한 민족 영웅 발굴’을 명목으로 작년에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후 감사를 해보니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같은 강의를 편성하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한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금 한도의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한 정황도 적발돼 정부는 A 단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을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부정 사용이 적발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최경운 기자 **A6면에 계속**

### 八面鋒

한일, 4년 만 만에 ‘조계기’ 봉합하고  
北 미사일 협력하기로. 국방서도 과거  
대신 미래로.

○  
軍 장병들, 햄버거·치킨에 커피까지  
부대로 배달시킨다고. 나중에는 생필  
품 새벽 배송까지 시키려나.

○  
300명 가까이 목숨 앗아간 印度 열차  
충돌 참사.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내세우는 死後藥方文 되풀이 많아야.

지하철 10초 거리, 편의시설에서 전문 병원과 입원실까지 한곳에 모두 갖췄다! **은행이자? 나는 병원 원무과에서 월세 받는다!**

**피부과**  
**피부과**  
**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체형관리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검진센터**

**도수치료**  
**도수치료**  
**VIP입원실**  
**5대암검진**

안전성과 미래 시세차익, 임대 수익을 갖춘 **사거리 코너 의료전문 메디컬 타워!** ※안전한 코리아신탁(주)로 청약접수 후 입금순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 투자의 기준!

-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랜드마크 메디컬 타워**
- 사업지 일대 **최대규모 병원 상가**
- **다양한 진료과목과 전문성**을 갖춘 프리미엄급 의료시설
- **국내 전문 의료진이 선택**하고 결정한 핵심 상권

#### ■ 병원과 신청접수방법

|     |                  |
|-----|------------------|
| 은 행 | 새마을금고            |
| 계 좌 | 9002-1955-8463-2 |
| 예금주 | 코리아신탁(주)         |
| 신청금 | 100만원            |

분양  
문의

**031-528-7730**

※본 병원 층, 진료과목, 호수 분양 마감은 청약금 입금순으로 1순위 마감됩니다!